

사진으로 만나는 오대산 三大和尚

2021. 08. 08.
~2022. 03. 31.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월정사정보박물관



전시를 열며...

이번 전시는 일제강점기 이후 한국불교의 중추적인 구심점 역할을 했던 오대산 삼대화상 한암 증원, 탄허택성, 만화회찬의 사진 자료를 취합하고 이를 통해서 근현대 한국불교사를 이미지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전시를 마련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불교의 계몽과 현대 불교의 시작을 연 한암스님 평생 학문에 정진하여 동양학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고 화엄사학의 완역, 후학 교육에 힘쓴 탄허스님, 한암선사의 승가오직을 계승하여 한국전쟁으로 전소된 월정사를 다시 중창하고 탄허선사의 불교 교육에 대한 열정이 이룩되도록 노력하신 만화스님의 발자취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오늘날 오대산문의 기반이 된 세 분의 스님을 기억하고 올바른 불교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암선사의 삶과 수행



1951년 3월 21일
한암선사의 작탈



탄허대중사의 학문연구와 교육사업

탄허대중사의 삶과 수행



탄허 태성 (1913 - 1983)

呑虛 宅成

Buddhist monk Tanheo Taekseong

탄허대중사는 근현대 우리나라의 불교계를 이끈 최고의 학승이 20세기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승이자 유불도 삼교에 능통한 덕인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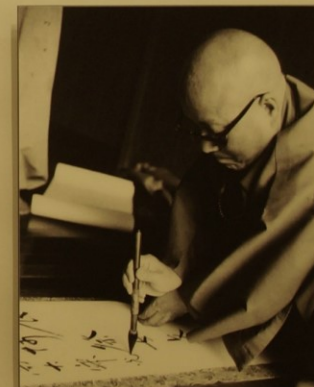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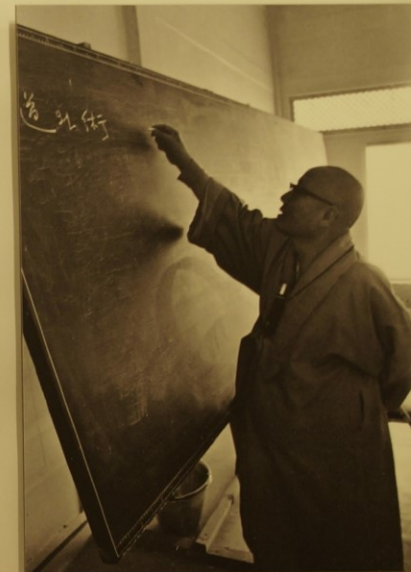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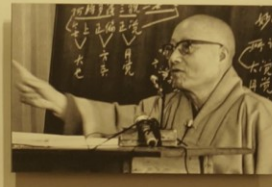
독립운동가 김홍규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탄허는 10대 시절 기학과 학통을 이룬 이극종을 스승으로 한학연구에 매진하였고 22세 때 한암스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한암스님의 법통을 계승하고 이를 불교학 연구와 교육에 매 불교의 중흥으로 펼치고자 했습니다.

스승의 뜻을 이어 전소한 활동사를 증진했으며 교육면의 한국불교의 미래라는 신념 속에 오대산 승려연합수련원(1936), 오대산수도원(1956)을 통한 교육사업과 후학양성에 힘썼으며 평생을 걸고 이룩한 화엄정 및 여러 불교 경전 번역사업을 통해 불경의 한글화라는 큰 뜻을 펼쳤습니다. 특히 신파일경합본 완간(1975)으로 이루어낸 「파일학」 연구성과는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적으로 주목받았습니다.

1983년 6월 5일 세수 71세, 법랍 49세에 입적하셨습니다.

탄허대중사의 학문연구와 교육사업



1954년

탄허대종사와 불교정화운동



만화선사와 함께한 스님들



만화선사의 대중 포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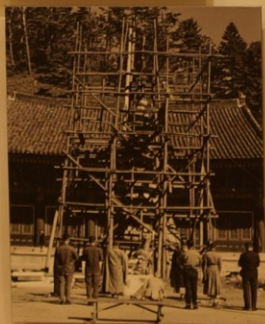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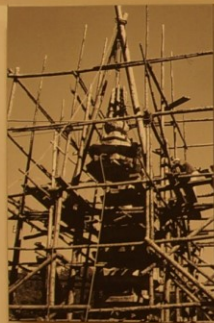


1979년

설 선 당 (동별당) 증 건



1970년
팔각구층석탑 해체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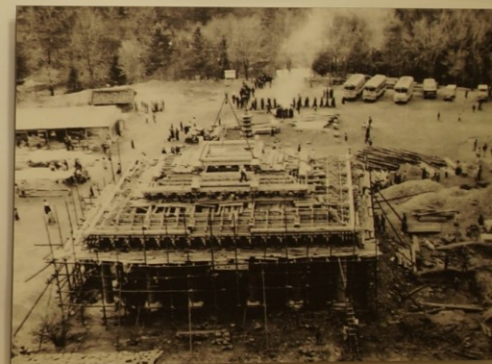


1974년
천왕문 증건



1969년

전광전 중창



만학선사와 함께한 스님들

만학선사의 대우 포고

1945년 10월 25일
만학선사에게 제향

만학선사에게 제향



1988년
의정선 중앙



1989년
의정선 국회



의정선서역 부속 소집

의정선서역 대동 포고

1991년 10월
의정선서역 국회



의정선서역 대동 포고

1992년
의정선서역 불교경자순무



의정선서역 직원연구회 교육시험



만학선사의 대중 포교

만학선사의 주지 소임

1980년 11월
만학선사 단비석

1980년 11월
만학선사 단비석

